

# 사망자 3명으로 늘고 이재민 471세대·주택 침수 495동

전남 집중호우 피해 '눈덩이'

장흥서 70대 노인 숨진채 발견

농경지 침수 2만4644ha로 늘어

소·닭 등 가축 21만여마리 폐사

낙석·토사 유실 등 32건 사고

전남을 연일 강타하고 있는 물폭탄형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수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고, 침수·파손 등으로 인한 이재민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침수 면적만 2만4644ha(7400만평)에 이르고 한우, 닭, 오리, 우렁이, 전복, 장어, 새우 등 농축수산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30분께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의 한 수로 주변에서 70대 노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집을 나섰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 붓자 논밭을 살피려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수 시간이 지나도 귀가를 하지 않자 마을 이장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119구조대가 수색에 나서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서 약 600m 떨어진 수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에 앞서 6일 새벽 3시께 해남군 삼산면에서는 범람한 계곡물이 주택을 덮쳐 60대 여성이 숨졌고, 같은 날 오전에는 광양시 진상면에서 80대 노인이 산사태로 흘러 내린 토사 등에 매몰돼 숨졌다.

침수 피해로 인한 이재민도 471세대 771명으로 조사됐다. 하천 범람 등 수해 우려로 집을 떠나 일시 대피한 이들도 55세대, 68명으로 나타났다. 진도 315동, 해남 64동, 장흥 51동, 고흥 33동 등 11

개 시군에서 495동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재산피해도 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6일 조사한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2만4644ha(6500만평)였는데, 7일 조사에선 2만4644ha(7400만평)로 늘었다. 밭사이 3160ha(950만평)나 피해 면적이 확대된 것이다. 농경지 침수 피해는 논벼 2만4524ha, 밭작물 116.3ha, 과수 4.3ha로 조사됐다. 논벼 침수 피해 규모는 해남 5275ha, 진도 5149ha, 고흥 4949ha, 장흥 3764ha, 영암 1384ha 등이다. 밭작물 피해 규모는 해남 55.6ha, 고흥 24.3ha 등이다.

축산·수산물과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축사 시설 피해는 장흥 57농가, 강진 24농가, 해남 23농가 등 9개 시군에 걸쳐 115농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도내 5개 시군, 13농가에서는 이번 비로 모두 2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한우 4마리, 닭 15만9000마리, 오리 5만 1000마리다. 양식장 시설 피해의 경우 진도 21여 개, 강진 5여 개로 신고 접수됐고, 2개 시군에선 수산물 유실 등 피해가 나타났다.

도로 등 공공시설물도 피해를 비껴 가지 못했다. 절개지 낙석 발생, 도로사면 토사 유실 등 32건의 사고가 났다. 해남 10개소, 화순 5개소 등 소하천 유실 피해는 23개소로 집계됐다. 해남 5개 마을, 강진 2개 마을, 장흥 1개 마을에선 상수도 시설이 고장 났고 보성과 장흥에선 각각 마을 3곳이 하수도 시설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도 23호선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 도로로는 토사 유실 등으로 도로가 통제돼 응급 복구 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3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지난 5일부터 호우가 이어져 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사흘간 누적 강수량은 해남 현산 532mm, 장흥 관산 464.5mm, 진도읍 457.7mm, 고흥 도양 417.5mm, 해남 403.9mm, 강진 381.5mm, 장흥 377.4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일 오전 진도군 진도읍 조급시장에서 육군 31보병사단 장병이 장맛비 침수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기본소득 공격·여배우 스캔들 추궁...이재명 집중 견제

민주당 대선주자 3차 TV토론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대책 이견

조국 이슈 재보선 패인 3명만 동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지난 6일 밤 3차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이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승조 후보는 기본소득을 겨냥, "빛좋은 개살구"라며 "신뢰에 금이 갔다. 이제 와서 제1공약으로 발표한 바 없다고 하면 당혹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둔, '추·명 연대' 관측까지 낳았던 추미애 후보마저 "갑자기 (기본소득이) 대표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 우선이라고 하나"라며 일면 태세 전환에 나섰다.

특히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추궁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답했다가 논란이 된 것을 지적하며 "민망하고, 놀랍기도 하고, 영동하고 부적절했다.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자 몸조심'을 하시지는 '김빠진 사이드'가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뭉만 풀다 쓰러지지 않을까 하고 이재명 후보는 몸 사리다 주저않는

거 야닌가 걱정이 든다"고 비꼬았다. 이날엔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이상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관대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후보들은 공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택지에 주택을 로보분양할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료 평생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에 좋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며 "이런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 거듭 송구하다"며 "주택 문제의 3원칙이 있다.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내달 7일부터 순회경선...광주·전남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내달 7일 중원인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광주·전남(8월 21일)을 거쳐 9월 5일(서울)까지 총 11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대의원과 관리당원이 참여하는 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매번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또 경선 흥행 차원에서 이른바 '슈퍼 위크' 제도를 시행, 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3차례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본경선 일정을 마련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지역별 대의원·관리당원의 투표 결과도 현장에서 각각 발표된다. 총 4차례 권역별 순회경선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경선 투표결과는 매번 현장에서 공개됐다. 또한 선거인단은 '슈퍼 위크'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1, 2, 3차로 나눠 모집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3차례(8월 15일·8월 29일·9월 5일)에 걸쳐 발표, 경선 주목도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슈퍼 위크'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제20대 대선후보 선출규정'을 정하면서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다.

선거인단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예비경선 투표를 종료하고 오후 5시 30분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8명 후보 가운데 상위 6명만 본경선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은 9월 5일 서울 경선 종료와 함께 권역별 경선·선거인단·재외국민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

## 거침없는 송영길의 '금기 깨기'

대개문 발언 이어 박정희 격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연일 여권의 금기 깨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사태, 청와대 인선, 당 강성 지지층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송 대표는 7일에는 진보 진영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호평을 내놓으면서 역사관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다. 대선 을 앞두고 중도 공약에 소매를 걷어붙인 셈이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반도체특위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꺼냈다. 마침 이날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라는 게 직접 매개가 됐다. 송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며 "대단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만주국 시절에 아타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중국 요동성의 안산 제철소를 벤

치마킹했고, 만주철도의 원료를 만드는 현장을 경험했다"며 "그래서 아타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포항 제철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재평가'를 두고 대선 전 민주당의 확장성을 키우기 위한 계산된 발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그동안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며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같은 정책 수정 행보를 이어왔다.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문제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개 비판하고, 당내 강성 지지층을 '대개문'이라고 표현하며 집단 행동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송 대표의 거침없는 파격 행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개문'에 맞춰진 기존의 사고와 행태를 무너트려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특히 특정 대권주자 진영에서는 경선 일정이나 국민연립관 선정, '대개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송 대표에게 수시로 사과를 촉구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